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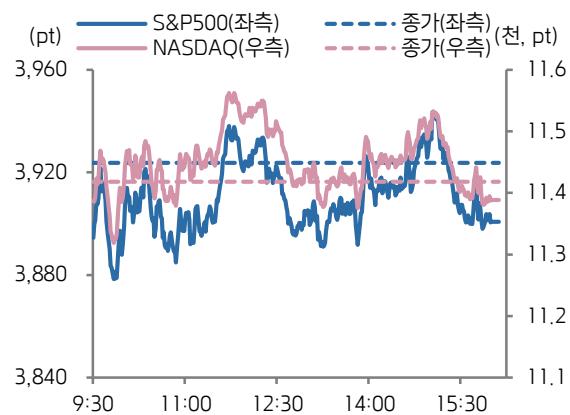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9 일 (목) 미국 증시는 장중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경기 둔화 우려 속 옵션 만기일을 앞둔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경기 관련 우려감이 지속된 가운데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쇼크를 기록하면서 0.8% 하락 출발. 전일 급락(S&P500 -4.0%, 나스닥 -4.7%)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 업종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음. 지수는 -1.0~+0.5% 사이에서 등락을 하다 결국 하락 마감. VIX 지수는 5% 하락했지만,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2.86%)는 3bp, 2 년물 금리(2.61%)는 7bp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다우 -0.75%, S&P500 -0.58%, 나스닥 -0.26%, 러셀 2000 +0.08%).

업종별로 소재(+0.7%), 헬스케어(+0.2%), 경기소비재(+0.1%)는 상승한 가운데, 필수소비재(-2%), IT(-1.1%), 산업재(-0.9%) 등 대부분 업종은 전일 약세 흐름을 이어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6%), 다우 운송 지수(-1.8%) 모두 하락. 미국 5 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2.6pt(예상 16.0pt, 전월 17.6pt)로 금주 뉴욕 지수에 이어 시장 예상치를 그치 하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8 만명(예상 20 만명, 전주 19.7 만명)으로 전주대비 소폭 상승. 백악관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가 NATO 를 가입하는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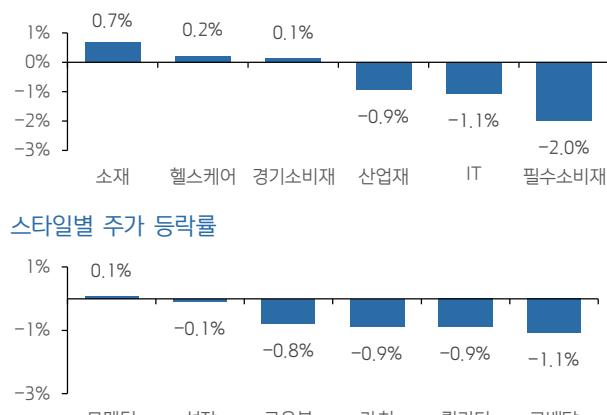
종목별로 빅테크는 혼조세를 보임(애플 -2.5%, 알파벳 -1.5%, 테슬라 -0.1%, 엔비디아 +1.1%). 시스코(-13.7%)는 공급망 차질 이슈들로 매출 및 가이던스 부진으로 주가 급락. 이외 유통업체들 중 배스바디앤웍스(-6.8%), 콜스(+4.4%)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지만, 주가 반응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금주 급락한 월마트(-2.8%), 타겟(-5.1%)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도 증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한편 씨티그룹은 유니온퍼시픽(-3.8%), CSX(-4.3%)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여파로 주가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00.79	-0.58%	USD/KRW	1,277.69	+0.88%
NASDAQ	11,388.50	-0.26%	달러 지수	102.90	-0.88%
다우	31,253.13	-0.75%	EUR/USD	1.06	-0.04%
VIX	29.35	-5.2%	USD/CNH	6.73	+0.04%
러셀 2000	1,776.22	+0.08%	USD/JPY	127.84	+0.04%
필라. 반도체	2,890.33	-0.6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439.21	-1.84%	국고채 3년	3.047	-0.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07	-0.8bp
Eurostoxx50	3,640.55	-1.36%	미국 국채 2년	2.607	-6.2bp
MSCI 전세계 지수	619.58	-0.65%	미국 국채 10년	2.837	-4.7bp
MSCI DM 지수	2,665.06	-2.9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33.19	+0.23%	WTI	112.21	+2.39%
MSCI 한국 ETF	65.47	+1.93%	금	1847.8	+1.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5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3.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역외에서 10 원 넘게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장중 발표될 예정인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
3. 바이든 방한에 따른 관련 수혜 테마주(반도체, 방산 등)들의 주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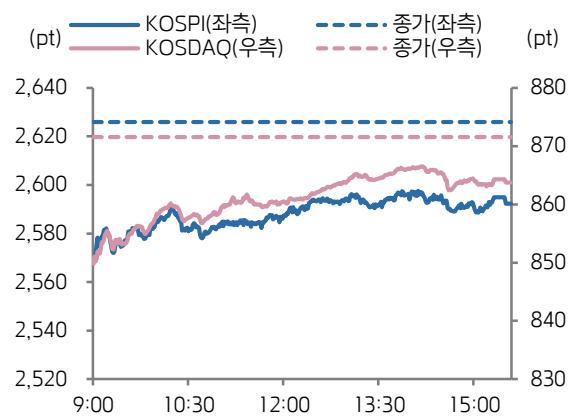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매크로 환경 상으로 신규 악재성 재료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공급난을 둘러싼 기존 악재성 재료(연준 긴축, 경기둔화, 스탠다드플레이션 등)가 시장 심리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19일 어닝 쇼크 발표로 인한 시스코 시스템즈(-13.7%)의 주가 급락이 보여주듯이, 지난 3 월 이후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행했던 중국의 봉쇄조치 충격이 기업들의 사업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실적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5 월 이후 중국은 단계적인 봉쇄조치 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단지인 상해 지역은 22 일부터 대중교통 정상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봉쇄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현시점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봉쇄조치가 이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

중국발 악재는 점차적으로 해소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되돌림 현상, ECB 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유로화 상승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불안으로 점철된 주요국 증시에 일말의 안도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현재 102.9pt, 고점 105.1pt). 또한 안전자산선호 영향도 있겠으나, 기술 및 성장주들 주가에 할인율 부담을 가했던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현재 2.83%, 고점 3.20%)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중립적 이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악재성 재료가 우위에 있고 시장 심리를 지배하는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부분 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온 상태이며 일부 악재들은 추가 악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관론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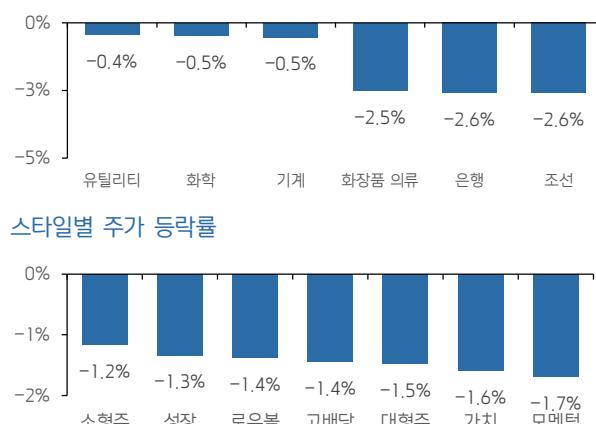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변동성 장세 지속,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2 차전지 주들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 여타 증시 대비 상대적인 벨류에이션 매력 부각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또한 달러화 약세로 인해 현재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 원 넘게 급락하면서 원화 약세 오버슈팅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도 수급 상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장중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LPR 금리결정도 중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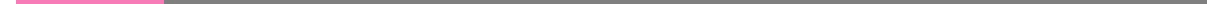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